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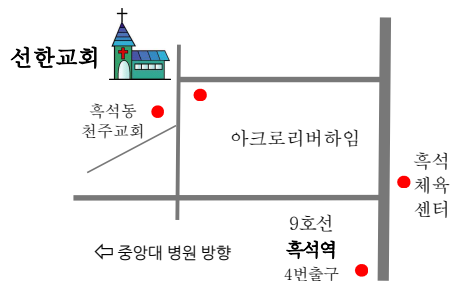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 육 목 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 쁨 교 회 (유 성 은 목 사)
	교 육 전 도 사 윤 영		주 의 뜰 교 회 (김 대 열 목 사)
	협 력 전 도 사 오 호 남		주 안 예 교 회 (이 정 필 목 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가 슴 뛰 는 교 회 (원 종 선 목 사)
	박 희 태, 유 신 웅		이 금 춘, 김 인 실
장 로	윤 호 중 (집 사 장)	관 리 장 로	조 나 단, 강 야 엘
	조 윤 익, 박 영 근		손 석 규
	조 계 승, 이 태 수		(1호) 필리핀 Good Church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5장 (통일찬송가 25장)	
교 독 문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찬 양 과 경 배	351장 (통일찬송가 389장)	
기 도	편 도 선 장로	박 병 일 청년
특 송	[선한 능력으로] 테너 파트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	마태복음 5장 5절
설 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 (임춘배 목사)	온유한 자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 (시18:1-19)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 배 안 내
1.8월 첫주일(7일)부터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2.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침례식
8월7일 주일 11시 예배후. 침례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3. 개인경건훈련안내
*성경 1독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19 기도제목
1.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름 부서별 행사

운영위원회	8/15일 (월)	요셉회	7/30 (토)
유아부	7/3~24 (주일, 4회)	마리아회	8/6 (토)
유초등부	7/3~24 (주일, 4회)	루디아/여호수아	8/28 (주일)
청소년부	7/29~31 (금~주일)	드보라회	7/31 (주일)
청년부	8/14~8/15(주일~월)	바울회	8/6 (토)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한 참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주가 되기를
--------------	---

찬송 : ‘내 주여 뜻대로’ 549장(통 431)
본문 : 민수기 22장 15~29절

말씀 : 신앙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주도권 싸움을 해요. 내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심각한 갈등과 고투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런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발람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 예언자가 처음에는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날 밤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심각한 갈등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되니까요. 애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이번에는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고 복채도 훨씬 더 많이 보내면서 꼭 데려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찾아갔지요. 여기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이 혹시 몰라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20절)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분명히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나요.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모압의 신하들이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더러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랬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발람의 생각입니다. 발람이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들은 것이지요. 모압 왕의 신하들이 은금 보화를 산더미같이 싣고 온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살짝 고개를 든 것이지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판단이 빗나가고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지면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분간을 못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넘겨준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행복할 때 행복합니다.

제 목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 (살후2:1-12)

서 론 바울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론

1.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해
- (1)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두려워함(2절)
- (2) ‘주의 날’의 두가지 증거: ① 배교하는 일이 있고
②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3절)
- (3) 불법의 사람: ①자칭 하나님(4절)
②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행함
③많은 사람이 미혹됨(9,10절)
- (4) 주의 강림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됨(8,12절):
①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10절)
②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12절)
2. 교훈
- (1) 주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 (2) 주의 강림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 (3) 불법의 사람과 배교의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 론 거짓을 분별하고 항상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며 성도를 세우는 사역자	날짜 : 7월 25일
찬양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본문	고린도후서10:1~11		
말씀요약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자신의 무기라고 합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외모만 본다고 질책하며, 자신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성도를 세우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편지로 하는 말과 자신이 함께 있어 행하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묵상질문 1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10:1~6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릴 세상의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10:7~11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나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새우기'위해 힘쓰는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0장 3,8절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은 '힘'에서 오지만, 권위는 '인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동되면 권력은 폭력이 되고, 권위는 독선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성도에 맞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3절)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주님이 주신 권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직분이 주님이 주신 권세임을 인정하며 육신으로 맞서지 않는 사역자가 참다운 사역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오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세상의 모든 우상과 사상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소명을 따라 전진하는 삶”
찬양과 기도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 520) 내 안에 사는 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밀한 방향이 다를지라도 결국엔 북쪽을 향해 갑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향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북극성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공동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며, 오해와 비난의 요소가 늘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상황이 인생의 종점이 아님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십니다(잠 16:9).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격려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하며, 지나온 모든 길을 선하시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과 상처는 영적 재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10:12~18	
묵상포인트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과 헌신의 열매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자랑이나 목적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13~14절)	
적용하기	사역하다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의 소명을 확신하며 끝까지 감당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식	날짜 : 7월 29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고린도후서 12:1~10		
말씀요약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계시를 받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이를 없애 달라는 그에게 주님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고난을 기뻐함은 그가 약한 그때에 주님 능력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주님의 환상과 계시 12:1~6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2절)이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나눌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육체의 가시 12:7~10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2장 7,9절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간주되던 시절에, 바울은 질병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해석했고, 그런 이유로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는 자신의 질병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아무 문제 없는 '형통' 만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질병조차 사랑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택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몸과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시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순간순간 높아지려 하는 저를 낮추시는 은혜의 버튼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은혜가 제게 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능력이 제 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매일 Q.T.		정해 주신 한계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	날짜 : 7월 26일
찬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본문	고린도후서 10:12~18		
말씀요약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고 칭찬하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바울은 결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에 갔고, 또 그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의 한계 10:12~14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칭찬하며 분수 이상으로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사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묵상질문 2	남의 수고로 자랑하지 말라 10:15~18 바울의 겸손과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보며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나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나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0장 17~18절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탄의 계략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라고 시인하며 자기 자랑의 유혹을 거절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자기 자랑'이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면 '성숙'이, 자기 자랑이 이기면 '교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의 결과가 '넘어짐'임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칭찬보다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세우는 사람들의 찬사를 갈구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며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려는 제 내면을 고쳐 주소서. 사역과 삶의 모든 열매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성도가 분별해야 하는 다른 복음, 거짓 교사	날짜 : 7월 27일
찬양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본문	고린도후서 11:1~15		
말씀요약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대로 됩니다.		
묵상질문 1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11:1~6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질문 2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11:7~15 사탄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나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1장 7절 우월감도 문제지만 열등감은 더 문제입니다. 열등감은 타인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을 하게 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샅을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심리에는 바울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열등감과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맡겨 주신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제게 진실한 열정을 더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흔드는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의 다림줄을 곧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매일 Q.T.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 약함을 자랑하는 사역자	날짜 : 7월 28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고린도후서 11:16~33		
말씀요약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한 수고와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며, 자신이 받은 고난과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묵상질문 1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 11:16~21 고린도 성도들이 용납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었나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이들의 결국은 어떠한가요?		
묵상질문 2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 11:22~33 외면을 자랑한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보일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세상에서 '약한 자'가 싸움에서 지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많은 자'가 집니다. 곧 마음이 넓은 자가 싸움에서 집니다. 내가 이김으로 보게 될, 진 사람의 상처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해 부득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타인을 '이긴 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흠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헛되이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소서.		